

일본경제리뷰 No.19_02

< Special Issue >

일본의 ' 18년 4분기 GDP성장률과 전망 및 과제

Contents

<Special Issue>	2
I. 한일경제동향	5
II. 이달의 일본경제	
1. 경기·무역 동향	8
2. 경제정책	12
3. 기업전략	15
4. 산업기술	19
III. KJCF&KJE News	25
IV. 이달의 추천자료	25
V. 한일경제지표	27



< Special Issue > 일본의 ' 18년 4분기 GDP 성장률과 전망

□ 당분간 내수주도의 경제성장

- 2019년의 일본경제는 당분간 내수의 견조로 지탱되어, 해외경제의 감속에 의한 경기하강압력에 맞서는 구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일본의 민간 14개 기관의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측에 의하면, 2019년은 1%를 상회하는 성장률이 지속될 전망이다
- 다만 수출에 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어, 중국경제 등의 감속이 일본의 수출 및 생산에 제동을 걸 우려가 있다는 지적임

< 2018년 4분기 GDP 성장률 내역 >

(단위 : %)

		2017	2018	2017			2018			
				2/4	3/4	4/4	1/4	2/4	3/4	4/4p
GDP	전기비	1.7	0.7	0.5	0.5	0.1	-0.2	0.5	-0.7	0.3
	연율환산	1.7	0.7	2.0	2.0	0.6	-0.6	1.9	-2.6	1.4
개인소비		1.0	0.4	0.7	-0.7	0.2	-0.0	0.7	-0.2	0.6
주택투자		2.7	-5.7	0.9	-1.6	-2.7	-2.1	-2.7	0.5	1.1
설비투자		2.9	3.8	0.8	1.0	0.6	-0.1	1.3	-2.7	2.4
정부소비		0.2	0.8	0.2	0.0	-0.0	0.0	0.2	0.2	0.8
공공투자		1.2	-3.0	4.7	-2.6	-0.4	0.0	-0.1	-2.1	-1.2
수출		6.7	3.1	-0.1	2.0	2.2	0.6	0.2	-1.4	0.9
수입		3.4	3.3	1.8	-1.3	3.1	0.3	1.0	-0.7	2.7

자료: 내각부, p)는 1차 속보치

□ 2018년 4분기 GDP성장률 연율 1.4%

- 일본내각부가 발표한 2018년 4분기 GDP성장률(속보치)는 전기비 0.3%, 연율 1.4% 증가를 기록했다
- 3분기에는 잇단 자연재해의 영향이 생산이나 소비, 수출 등에 폭넓게 미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4분기는 피해를 입은 설비·시설이 재개되어 2분기만에 플러스성장으로 회귀했음
- 세계경제의 감속영향이 일본경제에 파급되기 시작, 특히 중국의 경기감속 영향으로 대중국 자본재수출이 약세를 보이고, 정보관련재의 수출도 부진했음

- 그래도 GDP의 50%이상을 점하는 개인소비와 설비투자는 견조를 보여, 해외로부터의 역풍을 견디어냈음
- 전기대비 0.3%의 성장률 중, 0.6%분은 내수가 기여했음
- 내역을 보면, GDP의 50%이상을 점하는 개인소비가 전기비 0.6% 증가로, 3분기의 -0.2%에서 회복되었음
- 음식 및 숙박, 항공 등 레저 관련 회복이 두드러짐. 자연재해가 개인소비를 떨어트리고 있었으나, 4분기는 회복되었음. 자동차 판매도 견조를 보였음
- 민간 설비투자도 2.4%증가로 전체를 끌어올렸음. 생산용기계의 증가가 기여했음
- 한편 중국경제 둔화로 수출 전체가 부진, 이 영향으로 GDP에 대한 외수의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작용됨
- 또한 2018년 연간 성장률은 실질 0.7%로 2017년 수준을 하회했으나, 2012년 이후 7년 연속 플러스성장을 보였음

□ 2019년에도 내수가 뒷받침할 전망

- 2019년 일본경제는 해외경제의 악화를 배경으로 외수기여도가 저하되고 재고조정이 계속되는 등의 악재가 있는 한편,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일본정부가 경기부양 자세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나 유가하락의 진전 등이 호재로 작용, 완만한 경기확대를 계속할 전망이다
- 2019년도 세계경제가 서서히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당분간은 내수가 이를 보충하는 구조가 될 것 같음
- 일본경제신문(2019/2/15)은 민간 이코노미스트들에 의하면, 2019년 1-3월기는 소비가 전기대비 0.2%, 설비투자는 0.5% 각각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도하고 있음
-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공공투자도 1.6% 증가, 내수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수출은 예측치 평균치로 0.3% 증가할 전망이나,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음
-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는 중국정부에 의한 경기자극책 영향으로 수출은 견조하게 추이할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닛세이키조연구소는 해외경제의 감속을 배경으로 수출의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주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무역면에서 연결이 강한 중국경제의 동향임
- 중국에서는 스마트폰 등의 생산이 감소, 미중 무역마찰에 대한 불투명감 등 때문에 중국 국내에서 투자 및 소비를 억제하는 움직임이 있음
- 2018년 12월의 무역통계속보에 의하면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 감소, 중국의 2018년 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6.6%로 28년만에 낮은 수준임
- 중국경제의 감속 영향이 수출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내 생산 및 설비투자에 까지 미칠지 여부가 앞으로 경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미즈호 연구소는 무역마찰과 세계경제감속의 영향으로 일부 제조업이 투자를 보류하는 움직임도 있어 증가율이 둔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2019년 후반에는 10월의 소비세율 인상 등 경기전인역인 내수에도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음
- 미쓰비시UFJ리서치앤컨설팅은 예상했던 것보다 수출이 부진하면, 다시 마이너스성장에 빠질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 일본의 외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내수를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일본경제신문에 의하면 하마킨 종합연구소는 생산성을 높이는 규제완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과제

- 아베노믹스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옳다는 지적이 많음
- 2012년말 아베정부 출범시, 일본경제는 ①엔고, ②자유무역의 부진, ③환경규제, ④노동규제, ⑤높은 법인세 등 5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여기에 더하여 ⑥전력가격의 상승, ⑦일중관계의 악화를 더한 소위 7중고를 시정하는 입장을 선명히 했다는 점에서 경제계 일각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효과 등으로부터 경기가 좋은 지금이야말로 노동, 농업, 의료, 간병 등의 분야에서 소위 암반규제를 완화하고, 세번째 화살(성장전략)을 강화, 사회 보장제도의 발본적인 개혁을 통하여 재정규율을 유지, 저출산대책 등에 의해 인구감소에 제동을 거는 등의 과제에 정면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데 합의가 모아지고 있음

I. 한일 경제 동향

□ 對日무역구조

- 한일 간 무역은 구조적으로 품질 등에 의해 가격차이가 있는 산업 내 수직적 제품 차별화 무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이에 한일 간 무역은 가격탄성품질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큼
- 한국의 對日무역구조는 섬유류와 농수산물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역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본재, 부품, 소재류 분야에서 역조 폭이 큼
- 한국의 만성적인 對日역조는 한마디로 한국제품의 對日경쟁력이 일본제품의 對韓 경쟁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데 기인하고 있음
- 생산비용과 품질 및 환율 외에도 일본의 비관세장벽과 일본인 직접투자가 한국제품의 對日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對日 비관세장벽 대책과 일본인 직접투자정책은 對日통상정책의 핵심임
- 2018년 기준 한국 수출의 對日의존도는 5.1%, 수입의 對日의존도는 10.2%
- 한편, 2018년 한국 제품의 일본수입시장 점유율은 4.2%

□ '19.1월 중 對日무역

- '19. 1월 對日무역적자는 1,436백만 달러로 전월대비 적자폭이 축소
- 對日수입이 감소한데다 對日수출이 전월의 감소에서 큰 폭의 증가로 반전된데 따른 것임
- 對日수출은 2,610백만 달러로 전월의 감소에서 6.4% 증가로 반전됨
- 10대 對日수출품목에 금속광물 대신에 산업기계가 포함된 가운데, 광물성연료와 산업용전자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들의 對日 수출이 증가

- 기계요소공구·금형의 對日수출 증가폭이 30.8%로 가장 큼(한일경제지표 1 참조)
- 對日수출 감소품목 중에서는 광물성연료의 對日수출 감소폭이 -26.7%로 가장 큼
- 對日수입은 4,046백만 달러로 전월대비 5.3% 감소
- 10대 對日수입 품목에는 변화가 없는 가운데, 산업기계, 수송기계, 전자부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들의 對日수입이 감소
- 산업용전자제품의 對日수입 감소폭이 -18.9%로 가장 큼
- 對日수입증가품목중에서는 산업기계의 對日수입 증가폭이 9.5%로 가장 큼

< 2019년 1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백만 달러,%) >

	2018.12월			2019.1월			2018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기비
對日수출	2,452	0.1	-10.9	2,610	1.0	6.4	30,574	14.0
對日수입	4,274	-13.6	-1.2	4,046	-9.8	-5.3	54,605	-0.9
무역수지	-1,823	-27.0	15.6	-1,436	-24.5	-21.2	-24,031	-15.1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일본인 직접투자

-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에 따르면 '18. 4분기 일본인직접투자는 크게 증가
- '18. 4분기 일본인 직접투자는 333백만 달러로 전기대비 246.9%의 큰 폭의 증가로 반전
- 이는 3분기 일본인투자가 격감된데 따른 반작용 영향으로 추정됨
- '18. 12월 일본의 對韓직접투자는 321억 엔으로 전월대비 56.1% 감소로 반전
- 이는 11월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반작용 영향으로 추정됨
- '18. 12월 일본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점하는 對韓직접투자 비율은 전월의 1.5%에서 0.5%로 크게 낮아짐

< 일본인직접투자 추이 >

		2017	2018	2018 3분기	2018 4분기	18.11월	18.12월
신 고 기 준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 (백만 달러, %)	1,862 (90.1)	1,301 (-30.1)	96 (-81.0)	333 (246.9)	-	-
	전체 對韓 외국인직접투자 (백만 달러, %)	22,970 (7.8)	26,901 (17.1)	3,449 (-68.1)	7,698 (123.2)	-	-
국 제 수 지 기 준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 (억 엔, %)	4,112 (18.8)	6,653 (61.8)	3,265 (214.5)	1,355 (-58.5)	741 (159.2)	325 (-56.1)
	일본의 對세계 직접투자 (억 엔, %)	559,108 (-18.0)	643,235 (15.0)	136,902 (-6.2)	150,244 (7.0)	50,113 (36.9)	63,518 (26.7)

주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재무성

- 2019년 들어 일본기업의 對韓투자사례로는, 일본 공작기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오쿠마코퍼레이션의 정식 한국 대리점인 글로벌트레이딩리더 업체가 창원지역 공작기계 전문 기업인 와프와 100억원을 공동 투자하기로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체결(서울신문 2019/2/15)
- 또 대전시가 이토제작소, 바이오코모의 유치성가에 이어 오가키정공과 투자 MOU를 체결해 총 3개 기업에서 16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
 - 오가키정공은 나노제품과 같은 첨단제품 제작업체로 한국의 대기업에도 부품을 납품하는 등 유망 있는 강소기업 중 하나로, 대전시가 지향하는 4차산업혁명 특별도시와 잘 맞는 기업임(충남일보 2019/2/19)

□ 인적교류

- '18. 12월 일본인 한국방문자 수, 전월대비 13.8% 감소
 - 12월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방문자수는 206,526명 12월보다 20.1% 감소
 - 그러나 전년동기비로는 일본의 3일 연휴(1.12-14)등으로 23.6% 증가
 - 그동안 일본인 관광객은 2010년을 정점으로 한일관계 악화와 엔화가치 하락 등으로 내리막길을 걸었음
 - 2018년 연간으로는 2,948,527명으로 전년대비 27.6% 증가
- '19.1월 한국인의 일본방문자 수, 14.3% 증가

- '19.1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방문자 수는 779,400명으로 전월보다 14.3% 증가
- 이는 관서지역과 홋카이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본정부의 관광부흥지원 사업 효과도 있음
- 2018년 연간으로는 7,539,000명으로 전년대비 5.6% 증가

□ 기타 한일경제 관계 관련 언론기사, 보도자료 등

- 닛케이 신문은 2월 17일자 사설에서 한일간 외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상호 비난을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져 한일관계가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라고 함
- 정용공 판결, 레이다 조사문제에 이어, 일왕 사죄요구 등
- 그러면서도 닛케이는 일본의 정계에서 한국에 강경한 보조조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활발한 민간교류에 대한 영향을 피해야만 한다고 함

II. 이달의 일본경제

1. 경기·무역 동향

□ 경기 완전한 회복세

- 일본경제는 강세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나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자연재해의 영향이 소멸됨에 따라 생산활동은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세계경제의 약세로 수출이 다소 힘을 잃고 있음
 -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12월 경기동향지수(2018년 100, 속보치)는 경기현황을 나타내는 일치지수가 102.3으로 두 달 만에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으로 2개월 연속 하락
 - 미중무역마찰과 중국경제 감소 영향으로 對아시아 스마트폰용 부품의 수출감소 등으로 수출이 약세를 보인 영향이 컸음

- 일본 내각부의 기초판단은 전월에 이어 보합상태에 있다는 판단을 유지
- 앞으로 일본경제는 개인소비 및 설비투자, 공공수요 등의 내수가 받쳐주지만 세계경제의 감축에 의한 수출 약세가 예상되고 있음
- 수개월후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도 97.9로 4개월 연속 하락
- 그러나 큰 돌발변수가 없는 한, 일본경제는 현재와 같은 회복세가 2019년 1월까지 이어져, 57개월간 지속된 고도성장기의 「이자나기 경기」를 넘어(2017년 12월), 74개월이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기록을 갱신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함
- 12월의 실질소비는 전년 동월대비 0.1% 증가
 - 주거 설비의 수선 및 유지가 증가한 외에 자동차의 구입도 증가했으며, 소매판매액도 1.3% 증가
- 12월의 민간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 기계수주액은 석유, 석탄제조업 투자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전월대비 0.1% 감소, 전년동월대비로는 0.8% 증가
 - 제조업은 전월비 8.5% 감소한 반면, 비제조업은 6.8% 증가 감소
 - 「일본은행 단관(短観, 2018년 12월)」에 의하면 기업의 투자계획은 18년 만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기업은 시장의 변화가 우려되기는 하나 현재 투자의 재검토는 없다는 것임
- 12월의 광공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1% 감소, 전년동월대비로도 1.9% 감소
 - 반도체 관련 생산이 저조
- 12월의 완전실업률은 전월보다 0.1%포인트 낮아진 2.4%로 3개월만에 개선
 - 남성 실업자의 감소가 기여했으나, 취업자 수는 감소
 - 유효구인배율은 전월과 같은 1.63배를 유지, 여전히 일손부족을 배경으로 기업들의 채용의욕이 강함을 반영
 - 일손부족을 배경으로 기업들은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채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성력화 및 자동화 투자를 늘리고 있음
- '19. 1월의 실질수출은 전월대비 20.0% 감소

- 중국에 대한 실질수출이 전월대비 30.1%의 큰폭 감소
- 앞으로 당분간은 미중 무역전쟁 등 통상문제의 동향과 중국경제의 감소 등으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 12월의 소비자물가는 생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로 전월에 이어 전년동월대비 0.7% 상승
 - 유가상승으로 에너지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이 이에 기여함. 전월대비로는 0.2% 하락
- 일본의 실물경제가 개선되는 중에도 물가와 임금 상승폭이 적은 편인데, 이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디플레이션 심리가 남아있어, 중장기적인 예상물가 상승률이 좀처럼 상승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일본이 강력한 금융완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임

□ 무역수지 적자 4개월 연속

- '19.1월 무역수지(통관기준)는 14,152억엔 적자로 전월의 567억엔 적자에서 적자폭이 대폭 확대
 -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전월의 1,944억엔 8,797억엔 적자로 적자폭이 대폭 확대되고, 최대 흑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전월의 5,678억엔 흑자에서 3,674억 엔 흑자로 흑자폭이 대폭 축소
 - 무역수지 적자는 4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전월의 증가에서 대폭적인 감소로 반전한 것이 무역수지 적자폭의 대폭적인 확대로 이어짐
- '19.1월 수출액은 전월대비 20.0% 감소한 5조 5,742억엔
 - 전적으로 수출수량 감소에 의한 것임
 - 5대 수출 품목은 변함이 없고 모든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자동차부품의 수출감소폭이 -24.1%로 가장 큼(지표 4)
 - 주요 국가·지역별 수출도 모두 감소한 가운데,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31.7%로 가장 큼(지표 5)
 - 음향영상기기와 통신기의 對중국 수출감소폭이 -48%~49%로 가장 큼. 이는 중국경제의 감속영향때문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수출감소가 중국의 설비투자 수요의 감소여파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한국에 대한 수출은 전월대비 11.9% 감소
- 역시 중국의 설비투자수요 감소를 반영하여 반도체 장치의 對한국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54%(전월비로는 12.8%)의 큰폭 감소
- ‘19.1월 수입액은 전월대비 1.4% 감소한 6조 9,895억엔
- 수입금액감소효과가 수입수량증가효과에 의해 억제
- 5대 수입 품목은 변함이 없는 가운데, 원유만이 유일하게 수입이 23.1%의 큰 폭 감소한 반면, 수입 증가품목 중에서는 통신기의 수입증가폭이 39.1%로 가장 큼(지표 6)
- 주요 지역별로는 중국과 호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폭이 -10.9%로 가장 크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대비 9.6% 감소(지표 7)

< 2019년 1월 일본의 수출입 (조엔, %) >

	2018.12월			2019.1월			2018년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금액	증가율 전년 동기비
수 출	7.0	-3.8	1.4	5.6	-8.4	-20.0	81.5	4.1
수 입	7.1	1.9	-7.8	7.0	-0.6	-1.4	82.7	9.7
수 지	-0.1	-	-85.7	-1.4	49.2	1,300	-1.2	-

자료 : 재무성

- ‘19.1월의 엔화환율(대미달러)은 109.0엔으로 전월대비 3.1% 엔고
- ‘19년 2월 들어서는 엔고추세가 다소 꺾여 110~111엔대에서 추이하고 있는데, 이는 미중무역교섭의 진전 기대 등에 의한 엔매도·달러매입 수요의 증가에 따른 것임
- 對원화 환율은 100엔당 1,030원으로 전월대비 3.1% 원저(엔고)
- ‘18.12월의 해외직접투자는 전월대비 26.7% 증가한 6조 3,518억 엔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그린필드형 투자와 M&A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2016년 이후 M&A의 비중이 그린필드형 투자를 상회하고 있을 만큼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의 대외M&A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첫째, 해외 현지의 수요확대를 예상한 대외M&A의 증가, 둘째, 금융완화책과 기업가치향상에 대한 의식개혁의 영향, 셋째, 세계적인 크로스보더 M&A증가 등을 들 수 있음

- 對한국 직접투자는 전월대비 56.1% 감소한 325억엔
- 한편, 2018년 연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64조 3,235억엔으로 전년비 15% 증가
- ‘18.12월의 경상수지 흑자는 전월보다 40.2% 감소한 4,528억엔
- 對아시아 수출이 크게 감소한 반면, 수입은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임

2. 경제정책

□ 일본정부의 제조업 기술관리 강화

- 일간공업신문(2019/2/13)은 제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술관리가 강화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로봇, AI 등 첨단분야를 둘러싼 국제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독일의 산업 기술정책이 변화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보도하고 있음
- 독일정부가 국가의 경제나 안보에 타격을 주는 해외기업에 의한 기업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할 가능성을 언급했음
- 그 배경에는 독일의 로봇 대기업인 KUKA가 중국기업(Midea Group)에 의해 매수된 것이 있음. 이와 같은 독일의 정책변경이 일본에게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2019년 2월 4일 독일 메르켈 총리의 방일시, 일본과 독일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확인한 바 있는데, 그 배경 역시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었음
- 메르켈 총리는 일본 체류 중에, 중국 화웨이 제품의 배제에 관하여, 동사가 중국 정부에 데이터를 건네주지 않겠다고 보증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음
- 일독 비즈니스포럼에서도 중국의 데이터 이용을 염두에 두고 주요 20개국·지역(G20)에서 데이터 윤리를 의제에 올린 것을 환영한다고 발언함
- 일독에서 데이터 면에서의 관계를 강화하여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도가 보여짐
- 특히 독일 정부가 해외기업에 의한 자국기업매수에 경계심을 강화한 계기가 된 것이 중국의 대형가전업체인 Midea Group(美的集团)의한 KUKA의 매입임
- KUKA가 가진 기술과 고객인 독일 자동차업체 등의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었던 것임

- 이에 일본정부도 국내 제조업에 대한 기술정보dml 관리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2018년에 적절하게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여 보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창설
 - 사이버 공격 등으로 기술유출 리스크가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인증취득을 촉구하여 기술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임. 기업들끼리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정비도 목적임
- 새로운 인증제도는 경제산업성이 2017년에 결정한 기술유출방지제도에 관한 지침에 기초하고 있음
 - 동 지침에 따라서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에 의해 보다 명확히 하여, 거래처 기업이 신뢰하고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그 배경에는 해외로부터의 사이버 공격 등에 의한 정보유출 리스크의 확대임
 - 특히 틈새기술을 가진 지방의 중견중소기업들은 표적이 되기 쉽다고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말하고 있음
 - 또한 최근에 디지털 기술의 진전 및 서플라이체인의 복잡화 등도 생각지 않은 장소에서 정보가 누출되는 리스크를 안고 있어, 일본정부는 전국의 경제산업국 등을 통하여 신제도의 이용을 촉구할 방침임
- 인증은 국가가 인정한 인정기관을 통하여 실시하는데 2018년도 내에 첫 번째 인증기관을 발표할 전망이다
- 한편 제일생명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다나카(田中) 씨는 다음과 같이 있음
 - 프랑스가 폐쇄된 사업소의 매각처 모색 등을 의무화한 「프로란주법」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주요 산업의 공장 해외이전을 방지하여 국내 고용을 지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이에 비하여 독일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기술을 지킨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일본은 독일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국가가 기업에 개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이나 프랑스와 차이가 있음

< 시사점 >

-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정책도 M&A시 국내고용 방어위주에서 앞으로 기술방어에도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가되, 기업들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일본의 해외투자 수익, 사상 처음으로 10조엔 돌파

- 일본의 경상수지 구도가 변하고 있음
 - 2018년은 기업의 해외에서 벌어들인 직접투자 수익이 처음으로 10조엔을 돌파함
 - 기업이 수출로 번 것이 아니고, 해외전개를 통하여 현지에 벌어들인 수익을 일본으로 환류시키고 있음. 세계적으로도 경상수지 불균형은 무역 이외의 영향이 큼
-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2018년 국제수지통계에 의하면, 해외와의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나타내는 경상수지는 19조 932억엔 흑자를 기록함
- 경상수지 흑자액은 2개의 기둥으로 설명할 수 있음
 - 하나는 해외자회사가 벌어들인 직접투자 수익의 10조 308억엔
 - 또 하나는 외국채권 이자 등에 해당하는 증권투자수익 9조 8,529억엔임
 - 무역흑자는 1조 1,877억엔이 불과함
- 일본기업들이 해외지향성을 높인 것이 배경임
 - 과거 일본 제조업은 일본에서 자동차나 가전을 생산,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 모델이었음
 - 그러나 현지의 니즈에 맞춰, 생산효율을 증시하기 위해 현지생산을 늘려왔는데, 가전분야에서는 한국이나 중국의 대두로 일본제품의 경쟁력이 약해진 측면도 있음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잔고는 2018년 8월말 현재 185조엔
 - 북미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10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남
 - 공장건설이나 M&A에 더하여 소매업 등 비제조업의 거점도 증가하고 있고, 최근 수년은 해외경기의 호조로 수익이 증가하는 추세임
- 해외증권투자의 잔고도 2018년 9월말 시점에서 473조엔으로 증가가 이어지고 있음
 - 일본내 투자처가 적어, 수익의 활로를 해외에서 찾으려는 것은 증권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임

- 일본경제신문(2019/2/9)은 이러한 현상을 국제수지발전단계설에도 따른 움직임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음
- 일국의 경제를 6단계로 나누어 보면, 5단계체인 성숙채권국은 경쟁력이 피크를 지나, 국제수지는 악화하나, 과거의 저축이기도 한 투자의 수익으로 경상수지흑자를 확보할 수 있는 단계임
- 그러나 일본은 저출산고령화가 진전, 장기적으로는 국내 저축은 줄어들게 됨. 수출 경쟁력도 유지할 수 없으면 경상수지는 축소, 언젠가는 적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임. 이것이 마지막 6단계체임
- 일본의 경제계 일각에서는 투자수익은 20조엔 규모로 크게 안정되고 있어, 앞으로 10~20년 정도로 경상수지 적자로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음
- 그러나 고령화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경상수지 적자 위험은 조금씩 높아져 갈 것임
- 2019년 6월 G20회의를 앞두고, 의장국인 일본은 경상수지 불균형 시정도 의제로 하게 되어있는데, 미국 정부는 무역에 초점을 맞추고 불균형 해소를 꾀하려 하고 있음
- 그러나 일본의 경상수지흑자의 태반은 투자수익이며, 가령 시정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공장폐쇄나 미국채를 매각해야만 되는 바, 미국으로서도 불이익이라는 지적임

< 시사점 >

-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성숙채무국으로서 경상수지 흑자는 유지하고 있으나 그 상당부분이 외부적으로는 유가하락, 내부적으로는 인구구조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장기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면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임
- 이에 성숙채권국으로서 전환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높이면서, 대외자산 축적 및 이를 위한 수익성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3. 기업전략

□ 일본산 제품의 對아시아 수출 가속화(일본경제신문 2019/2/5)

- 일본 제조업의 일본 유턴이 한층 진전되고 있음

- 시세이도가 최대 500억엔을 규슈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한데 이어, 라이온도 일본에서 52년만에 치약공장을 건설함
- 2018년에 3,000만명을 상회하는 방일관광객이 귀국 후에도 일본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중국으로부터 인터넷 경유로 구입된 일본제품은 대중 수출의 10%에 상당한다는 시산결과도 있음
- 생산거점에서 소비거점으로 변모하는 아시아지역의 수요가 투자의 일본회귀를 지원하고 있음
- 시세이도는 2021년을 목표로 후쿠오카 현 구루메 시에 새로운 공장을 가동함
- 생산능력은 약 1억 4,000만개로 중고가격대의 스킨케어, 에릭실 등을 생산함
- 동사는 현재 오사카 부와 도치키 현에서도 새로운 공장을 건설중으로 세계 전체의 생산능력은 두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거점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상품부족이 만성화하는 일본으로의 공급력도 높일 계획임.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IoT 등 최첨단 생산기술을 도입
- 생산성을 높이면 일본내 임금수준으로도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임
- 대형 일용품 업체들 사이에서는 생산거점을 일본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음
- 유니참은 2019년에 후쿠오카 현에서 일본에서 26년만에 새로운 공장을 가동, 중국 등에서 인기가 있는 고급종이 기저귀 등을 생산함.
- 라인온도 2021년에 일본에서 52년만에 치약공장을 가가와 현에서 가동할 예정임.
- 이제까지 일본의 제조업이 해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공장이나 판매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음
- 그러난 최근에는 인터넷 통신판매나 월경EC(국제전자상거래)의 보급으로, 현지에 자산을 갖지 않더라도 판매할 수 있는 환경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 방일객들은 귀국 후에도 일본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 같은 일본기업 제품이라도 중국 등에서 생산한 제품보다도 일본산이 인기가 있다고 함.

- 경제산업성이 2017년 시점의 예측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월경 EC경유로 구입된 일본 제품의 시장규모는 2018년에 약 1조 6천억엔
- 화장품이나 기저귀 등의 일용품이 중심으로, 일본의 대중 수출액의(약 16조엔)의 10%에 상당하는 규모임
- 일본 무역통계에 의하면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의 수출은 2018년까지 8년간 화장품이 10배 증가한 외에, 시계가 90%, 가전이 40% 증가했음
- 자동차 등도 포함한 주요 소비재 수출은 40% 증가, 수출 전체의 증가속도(20%)를 상회함
- 세계의 공장으로서 일컬어지는 중국은 소득수준의 상승으로 소비거점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인도네시아나 베트남도 방일객이 10% 이상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중국과 마찬가지로 본국에서 일본산 제품에 대한 수요증가 기대되고 있음
- 일본기업들은 이제까지 인건비가 저렴한 신흥국에 생산을 이전해왔으나, 해외 인건비 상승 및 소비시장으로의 전환 영향으로 일본 내 공장에 재투자하여, 수출거점으로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시사점 >

- 최근 일본산 제품의 수출증가는 ①중국 등 일본의 신흥 해외직접투자대상국의 인건비 상승 등 투자환경 악화, ②중국과 동남아, 심지어 한국도 일본관광객 증가에 따른 인바운드 구입 및 인터넷에 의한 직접구입, ③일본내 공장의 생산성 향상 등을 들 수 있음
- 이들 요인들이 어우러져 일본내 생산을 위한 해외투자기업들의 일본회귀 증가와 이것이 일본산 제품의 수출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임
- 한국도 일본과 같은 패턴의 한국산 제품의 수출증가현상이 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을 위한 국내투자 증가와 함께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해야 할 것임

□ 신일철주금, 스테인리스 사업재편(일간공업신문 2019/2/19)

- 신일철주금 그룹이 스테인리스 사업재편의 구체적인 틀을 굳혔음

- TIG용접(전극에 텅스텐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강관과 레이저 용접강관을 제조하는 일철주금 스테인리스강관이 일신제강 산하에서 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일신제강 스테인리스강관을 흡수합병하는 것 등이 주 내용임
- 신일철주금이 4월로 예정된 일본제철로의 사명변경을 계기로 각사의 경영자원을 결집시켜 어려워지고 있는 국제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임
- 용접스테인리스 강관분야에서는 일철주금 스테인리스강관이 일신제강 스테인리스강관의 전 주식을 4월 1일부로 일신제강으로부터 매수하여 흡수합병함
- 일철주금 스테인리스강관은 동일부로 사명을「일철스테인리스강관」으로 변경, 본사 사무소를 동경 치요다 구로 이전함
- 상호 강점을 살려 제품종류나 제품개발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공장간 역할분담으로 생산체제를 효율화할 방침임
- 또한 자동차용 스테인리스 강관사업에서는 일신제강의 상권을 회사분할방식에 의해 동일부로 일철주금강관으로 이관하여 판매기능을 통합시키는 외에, 일철주금강관과 일철 스테인리스강관 간에 제품별로 제조기능을 분담하는 체제로 바꿈
- 2021년 9월까지 생산이관을 끝내고, 영업면이나 기술면에서 우위성을 발휘시킬 의도임
- 한편, 신일철주금 그룹 각사는 스테인리스강관사업의 통합에 관한 기본계약도 체결했음
- 신일철주금과 일신제강의 스테인리스강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분할방식에 의해 4월1일부로 신일철주금 스테인리스로 이관하여 통합시킬 계획임
- 이로써 그룹내 사업재편은 큰 고비를 넘을 전망이다, 앞으로는 신일철주금과 일신제강이 개별적으로 보유하는 냉간압연라인이나 표면처리라인 등, 중복된 설비의 통합이 과제라 될 것임

< 시사점 >

-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철강사업 재편과 함께 노후설비 폐쇄, 경쟁력 있는 새로운 설비로의 적극대체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한국은 2016년 9월, 2016년 정부가 발표한「철강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에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이 명기되어 있는데, 진행이 더디기만 하고 심지어 구체적 조정과 사업재편의 방향이 제대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임

- 이에 우리도 철강 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서두르지 않으면 일본 및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

4. 산업기술

□ 차세대 슈퍼컴퓨터「케이(京)」, 데이터 대량생산으로 속도 100배로(일본경제신문 2019/2/18)

- 차세대 일본산 슈퍼컴퓨터의 계획이 개시됨
 - 2019년 8월에 운용을 마치는 일본산 슈퍼컴퓨터「케이」의 후속기로, 2019년도부터 설치에 착수하여 이르면 2021년에 운용을 개시함
 -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슈퍼컴퓨터로 인공적인 데이터를 무진장으로 창출하는 획기적인 신약이나 혁신적인 생산기술 개발에 연결됨
 - 관민 합쳐 약 1,300억엔을 투입, 진행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추격하고 있음
- 슈퍼컴퓨터 케이는 이화학연구소가 고베시에 2012년 운용하기 시작했음
 - 계산속도는 당시 세계 1위였으나 그 후, 중국제 등에 1위 자리를 물려줌
 - 차세대기는 포스트케이라고 불려, 개발은 이화학연구소와 후지쓰가 담당하고 있음. 국책 슈퍼컴퓨터가 약 10년만에 대체되는 셈임
 - 포스트케이는 계산기로 실험 등을 재현하는 컴퓨터시뮬레이션의 계산속도가 케이의 100에 달해, 재료개발이나 자연현상의 해석 등을 추진하는 계산과학의 핵심을 담당
 - 빅데이터 해석이나 인공지능을 조합시켜 데이터과학을 뛰어넘는 새로운 분야도 개척
 - 리켄혁신지능통합연구센터 관계자에 의하면 고성능계산으로 인공데이터를 무진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함
- 인공데이터는 시뮬레이션기술에 의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가상적인 데이터를 새로이 만드는 것임
 - 보통은 현실의 실험데이터 등을 대량으로 수집하여 분석하나, 포스트케이에 의한 시뮬레이션은 지금까지 없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고 함

- 인공데이터에서 대량으로 가상적인 데이터를 창출하고 AI로 학습, 분석하면, 종래에 없는 지식이 습득됨
 - 미국의 애플이나 구글 등 GAFA에 의한 데이터의 독점이 문제시되는 가운데, 인공데이터는 유력한 대항수단이 될 수 있음
- 기대되는 분야의 하나가 약 개발임
 - 암 등의 치료분야에서 표적이 되는 단백질에 결합되는 후보물질을 발견하는 경우, 케이는 1주간에 수백개의 물질을 조사하는 것이 한계이었으나, 포스트케이라면 수만개로 증가, 연구 속도는 100배로 높아짐
- 기능성이 높은 재료개발 분야에서도 위력을 발휘하며, 대량의 데이터를 얻기 어려운 자연재해 연구에서도 기대됨
 - 지진은 발생빈도가 낮고, 사전예측으로 이어지는 데이터가 적음. 포스트케이로 초대형 지진을 인위적으로 재현하여 진원인 플레이트(암판)의 상태나 단층의 어긋남 등의 데이터를 창출하는가 하면, 예측의 정도향상으로도 이어짐
 - 수많은 인파의 행렬을 분석, 혼잡 회피나 피난의 유도 등에도 도움이 됨
- 산업경쟁력 향상에 대한 기여도 중요한 역할임
 - 자동차나 항공기 개발에서 실물을 사용한 시험 등을 대체할 수 있어 개발기간이나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음

< 시사점 >

- 일본은 8년 연속 슈퍼컴 1위를 지킨 국가로서, 차세대 초고성능컴퓨터 포스트 케이를 눈앞에 두고 있음. 이는 국가가 적극 나서 연구개발에 힘쓴 덕으로, 정부주도로 기업과 손잡고 케이 컴퓨터를 잇는 차세대 슈퍼컴 개발에 나선 것임
- 일본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8년 11월에 도입한 슈퍼컴 누리온이 23위에 그침
- 슈퍼컴퓨팅분야는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서 지구 환경 문제, 재난 예측 등 국가 중대 업무에 활용되며, 이외에도 의학, 제품 제작 설계, 생산 시뮬레이션 등 활용분야도 다양함

- 특히 일본이 강조하는 것처럼, 슈퍼컴퓨터가 산업경쟁력 향상에 대한 기여가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이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절대적임

□ 지진연구, AI로 진화(일본경제신문, 2019/2/14)

- 관측이나 경험에 의존하고 있던 방재와 감재 관련 지진연구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음
 -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는 관측 데이터를 보충하는 데이터를 컴퓨터의 모의실험에서 만들어 AI에 학습시켜 진원의 추정에 이용했음
 - 동경대학은 빌딩 내나 지하가 등의 흔들림의 상세한 예측을 실현했음
 - 발전되면 지진의 메카니즘 해명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종래 지진연구는 실제 관측데이터로부터 이론을 조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관측된 지진에 관한 이해는 가능하나 발생빈도가 낮은 대지진 등의 연구는 이루어지기 어려웠음
- 최근에는 전국적인 지진관측망이 정비되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지진도 시뮬레이션으로 관측데이터를 보충하게 되었음
 - AI를 사용하여 지진의 현상을 정확히 포착하는 연구방법이 개발되어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해양기구는 떨어진 장소에서 동시에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진원을 정확히 추정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함
 - 각지의 지진 관측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한 화상데이터를 기초로, 진원이 많은 곳에 있는지 판단하고, 나아가 화상데이터의 특징으로부터 진원의 장소를 파악함
- 한편, AI의 일종, 심층학습을 사용함. 동시발생한 지진은 관측사례가 적기 때문에, 학습에 사용하는 화상데이터를 시뮬레이션으로 만듦
 - 과거 지진파의 기록이나 지하의 지질구조를 토대로, 관동지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600건의 지진을 시뮬레이션하여 2만매의 화상데이터를 만들어 AI의 학습에 사용함
- 현재의 계산방법에서는 동시에 다수의 지진이 발생하면 진원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례가 있음

- 2018년 1월 도야마 현과 이바라기 현에서 동시에 진도 3~4도의 지진이 발생, 잘못된 긴급지진속보가 흘러나왔음
- 해양기구의 소프트에서는 진원의 개수를 99% 이상의 확률로 정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함
- 해양기구의 관계자는 장래 긴급지진속보에 사용하면 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이러한 방법은 데이터 부족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미발생 지진에서도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데이터를 AI에 학습시키면, 더욱 시뮬레이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반복하면, 지진의 규모나 피해의 추정 등 여러가지 계산을 보다 높은 정도로 할 수 있음
- 일본정부가 2012년에 발표한 남해도라프거대지진의 피해상정에서는 사망자가 최대 32만명으로 추계되어, 대지진의 감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함
 -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학술심의회도 2019년도부터 5년간 지진관련 연구계획에서 재해의 경감으로 이어지는 연구를 추진한다고 함
- 동경대 이찌무라(市村)교수팀은 지하가나 건물의 흔들림을 상세하게 추정하는데 AI를 사용했음
 - 종래는 복잡한 방정식에 의존했으나, 난해한 부분을 AI로 검출하여 우선적으로 계산, 4배의 빠른 속도도 해석할 수 있게 됨. 결과의 확실성도 AI로 수치화할 수 있고 예측결과를 방재에 활용하기 쉬워졌음
 - 실제 동경역 주변의 빌딩이나 지하가에 관하여, 지반까지 고려한 흔들림의 상세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됨. 이찌무라 교수는 AI의 이용은 지진해석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함
- AI에 의해 지진학의 이론이 수정될지도 모름
 - 일본 방재과학기술연구소는 진원이나 규모로부터 지진의 진도분포를 추정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1997-2015년에 발생한 2,000회 이상의 지진에 관하여, 규모나 진원의 깊이 등과 각지의 진도 확산의 관계를 AI에 학습토록 했음

- 종래 이론의 공식은 진도의 확산은 진원으로부터의 거리로 결정된다는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시제품인 AI로 실제 관측데이터를 조사하면, 진원의 깊이가 크게 영향을 미침을 알게 되었음
- 진도분포의 정확한 계산은 아직 어려우나 보다 현실에 가까운 이론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함

< 시사점 >

- 재해대국인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서도 최근 인공지능(AI)을 통한 지진 연구와 자연재해에 대한 AI 기술 도입에 주력하는 등, 지진 및 자연대책에 IT와의 융합이 키워드가 되고 있음
- 2016년 경주 지진이 말해주듯이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닌만큼, 술한 지진 발생에도 확고한 지진 대비책으로 지진피해를 현저히 낮추고 있는 일본을 벤치마킹하고 AI를 이용한 지진연구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항공기산업, 올저팬 기술의 결집체인 방위장비품

- 일본의 항공기산업은 일본산 여객기 MRJ보다도 대형인 일본산 항공기를 이미 실용화하고 있는데, 바로 항공자위대의 수송기 C-2와 해상자위대의 초계기 P-1임
- 전후 일본산 비행기 YS-11은 민간항공회사만이 아니고 해상보안청이나 자위대에서 채택되어왔고, 현재는 항공자위대가 일본에서 최장 YS-11의 운용기관이며, 전자정찰기 등으로서 운용하고 있음
- 그 후 전후 최초로 일본산 수송기인 C-1수송기가 개발되어, 1970년에 처음으로 비행했는데, YS-11은 프로펠러기이나 C-1수송기는 터보팬엔진을 탑재한 일본산 제트기였음
- 나아가 국제평화협력활동의 대응 등, 각종 사태나 재해 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C-1수송기의 후속기로서 C-2수송기가 개발됨
- C-2수송기와 동시에, 미국 록히드사의 P-3C초계기의 후속으로서, P-1초계기가 개발됨. 일본 주변해역의 장시간 초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초부터 초계기로서 개발된 항공기이며, 터보팬엔진도 일본산임

- C-2수송기와 P-1초계기는 가와사키중공업이 주 계약기업이자 전체의 총괄역으로서, 항공산업 각사가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결집한 올저팬체제로 개발된 항공기로 서로 앞으로 활약이 기대되고 있음
- 이에 더하여 이들 항공기 모두 동시 개발된 형제기로서 탄생된 점에 특징이 있으며, 주날개나 수평꼬리날개 등을 일부 공용화할 수 있게 제작되었음
- 2017년 6월 개최된 파리항공쇼에서는 P-1초계기를 처음으로 해외에서 전시하고, 2018년 4월에는 베를린 국제항공우주쇼에 해외에서 처음으로 비행을 실시했음
- 또 2017년 1월 두바이 에어쇼, 나아가 2018년 7월 영국에서 개최된 영국공군국제항공쇼에서 C-2수송기를 전시했음.
- 이와 같은 출전을 통하여 이들 2개 기종의 성능을 발신하고, 외국과의 방위장비·기술협력을 진전시키고 있음
- 항공기부품의 이전을 통한 방위장비·기술협력도 진전되고 있음
- 일본기업이 라이선스생산을 하고 있는 F-15전투기에 탑재되는 엔진부품의 미국라이센스源으로의 이전과 관련하여, 동맹국인 미국과의 안전보장·방위분야의 협력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해외이전을 인정할 수 있는 안전에 해당하는 것이 일본 국가안정보장회의에서 확인되었음
- 방위분야의 항공기 개발·제조를 통하여 축적된 기술은 민간분야의 항공기에서도 활용되고 있음
- F-2전투기의 개발에서는 복합재료 주날개의 실현 등의 기술을 축적하여, 그 성과는 일본기업이 제조를 담당하는 보잉사의 중형제트여객기 787용 복합재료 주날개에도 활용되고 있음. 일본의 우수한 기술력이 평가되고 있음
- C-2수송기는 C-1수송기에 비하여 근대화된 장비를 지닌 동시에, 약 4배의 항속거리, 약 3배의 탑재중량에 의해, 보다 많은 화물을 보다 멀리 운반할 수 있게 됨

<참고자료>

경제산업성, 「정책특집, 항공산업 vol.7」 2018/8/30 <https://meti-journal.jp/p/318/>

Ⅲ. KJCF & KJE News

□ 한일재단 & 한일경제협회 한일협력사업 행사 결과

○ 일본 일간공업신문사와 MOU 체결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전무이사 서석승)은 지난 1월 31일 일본 일간공업신문사(사장 井水 治博)와 양해각서(MOU)를 교환, 양국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음

Ⅳ. 이달의 추천자료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리포트(<http://www.kjc.or.kr/jpinfo/report.jsp>)

- 『지역미래전인기업 사례(21)신일본비파괴검사(新日本非破壊検査)』 2019-02-12
- 『지역미래전인기업 사례(20)제일의과(第一醫科)』 2019-02-07
- 『지역미래전인기업 사례(19)MICOTO테크놀로지』 2019-02-05
- 『지역미래전인기업 사례(18)인더스티리아(industria)』 2019-01-31
- 『지역미래전인기업 사례(17)아스타(aster)』 2019-01-29

□ 일본기관 연구보고서

- 『거시경제모델을 이용한 정책효과의 정량적 추계에 관한 조사』 경제산업성, '19.2.21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H29FY/000287.pdf
- 『IoT국제경쟁력 지표(2917년 실적)』 일본 총무청, '19.2.20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600756.pdf

- 『자원순환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움직임』 경제산업성, '19.2.16
http://www.meti.go.jp/shingikai/sankoshin/sangyo_gijutsu/haikibutsu_recycle/pdf/033_04_00.pdf
-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의장제도의 재검토』 일본 특허청, '19.2.16
http://www.jpo.go.jp/shiryou/toushin/toushintou/pdf/isyou_seido_190215_minaoshi/01.pdf
- 『분산형 에너지사회의 블록체인 기술』 미즈호종합연구소 '19.2.16
https://www.mizuho-ir.co.jp/publication/contribution/2019/taiyoenergy181130_01.html
- 『Society 5.0시대의 이노베이션과 연구개발의 방향성』 경제산업성 '19.2.14
http://www.meti.go.jp/shingikai/sankoshin/sangyo_gijutsu/kenkyu_innovation/009.html
- 『동아시아 신흥국과의 경제제휴에 관한 조사사업무보고서』 경제산업성, 19.2.13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H30FY/000545.pdf
- 『일본경제의 현황과 과제 및 제언』 자본시장연구회 '19.2.09
<http://www.camri.or.jp/files/libs/1232/201902080904105107.pdf>
- 『중소기업을 위한 모노즈쿠리 제휴를 성공으로 이끄는 13가지 포인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19.2.06
http://www.smrj.go.jp/ebook/monozukuri_13point/html5.html#page=45
- 『스타트업의 출구전략』 쓰쿠바종합연구소 '19.2.06
https://www.tsukubair.co.jp/wp/wp-content/uppdf/mreport/2019/02/201902_06.pdf
- 『기업의 해외진출과 환율변동의 영향』 재무종합정책연구소 '19.2.01
https://www.mof.go.jp/pri/publication/financial_review/fr_list7/r136/r136_04.pdf
- 『일본기업의 무역결제통화 선택의 결정요인』 재무종합정책연구소 '19.2.01
https://www.mof.go.jp/pri/publication/financial_review/fr_list7/r136/r136_06.pdf

V. 한일경제지표

1) 2019년 1월 對日 수출 10대 품목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18.12월			2019.1월			2018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기비
	총계	2,452	0.1	-10.8	2,610	1.0	6.4	30,574	14.0
1	철강제품	331	2.6	-6.8	414	17.1	25.1	4,080	5.1
2	광물성연료	505	7.1	-5.8	370	-24.4	-26.7	5,293	70.6
3	정밀화학제품	174	16.2	-8.9	190	31.5	9.2	2,042	28.3
4	석유화학제품	132	-6.9	-21.4	158	3.4	19.7	2,146	32.7
5	전자부품	138	-12.4	-18.8	148	-3.4	7.2	1,859	8.2
6	산업용전자제품	130	6.8	18.2	119	-17.1	-8.5	1,474	-1.5
7	수송기계	98	-8.8	-10.1	118	7.9	20.4	1,365	-11.0
8	농산물	83	-11.4	-15.3	103	12.9	24.1	1,096	2.1
9	기계요소공구·금형	78	-11.1	-15.2	102	3.0	30.8	1,041	-5.8
10	산업기계	74	3.1	-10.8	87	24.4	17.6	919	14.4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2019년 1월 對日 수입 10대 품목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18.12월			2019.1월			2018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기비
	총 계	4,274	-13.6	-1.2	4,046	-9.8	-5.3	54,606	-0.9
1	철강제품	562	-3.1	-1.2	552	1.9	-1.8	6,797	10.4
2	전자부품	493	-10.8	-1.6	514	-10.8	4.3	6,394	-4.1
3	정밀화학제품	449	11.4	2.5	391	2.8	-13.0	4,911	-15.1
4	정밀기계	380	-46.1	3.0	354	-48.0	-6.8	6,825	-13.4
4	석유화학제품	327	-17.9	-19.1	303	-19.0	-7.3	4,093	-7.2
6	수송기계	246	3.1	-3.5	249	49.0	1.2	2,883	0.5
7	산업용전자제품	259	-12.8	0.0	210	-7.6	-18.9	3,229	5.7
8	산업기계	169	2.5	-0.6	185	36.7	9.5	2,179	2.0
9	플라스틱제품	196	-6.1	1.6	180	5.6	-8.2	2,247	-5.3
10	기초산업기계	196	-41.3	-5.8	166	-31.0	-15.3	2,733	-17.0

자료 : 한국무역협회

3) 일본 주요경제지표

구 분	2018	2018						2019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GDP증가율(실질, 연율,%)	0.7	2.2	-2.6p	1.4p	-	-	-	-
경기동향지수(2010년100)	-	-	-	-	104.9	102.9	102.3	-
광공업생산증가율(전기비,%)	1.0	1.3	-1.3	1.9	2.9	-1.0	-0.1	-
실질소비증가율(전년비,%)	0.4	-1.4	-0.2	0.6	-0.3	-0.6	0.1	-
기계수주증가율(전기비,%)	3.6	2.2	0.9	-4.2	7.6	-0.02	-0.1	-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기비	1.0	-0.1	0.3	0.2	0.3	0.0	-0.2
	전년비	1.0	0.7	0.9	0.9	1.0	0.9	0.7
실업률(%)	2.4	2.4	2.4	2.4	2.4	2.5	2.4	-
수출액(조엔)	81.5	20.2	20.1	21.1	7.2	6.9	7.0	5.6
수입액(조엔)	82.7	19.4	20.7	22.5	7.7	7.7	7.1	7.0
무역수지(조엔)	-1.2	0.8	-0.6	-1.3	-0.5	-0.7	-0.1	-1.4
경상수지(조엔)	19.0	4.9	5.6	2.6	1.3	0.8	0.5	-
해외직접투자(조엔)*	64.2	14.6	13.7	15.0	3.7	5.0	6.3	-
환율	달러	110.4	109.1	111.5	112.9	112.8	113.4	109.0
	원화(100엔)	996	989	1,007	999	1,003	996	1,030
금리(10년물,%)	0.071	0.089	0.098	0.076	0.135	0.105	-0.01	0.001
주가(닛케이, 엔)	22,310	22,341	22,654	65,691	22,691	21,968	21,032	20,461

주: p)는 1차 속보치 *실행액 기준,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4) 2019년 1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억 엔, %)

순위	품목	2018.12월			2019.1월			2018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기비
1	자동차	11,105	-0.5	0.7	8,796	1.7	-20.8	123,076	4.1
2	반도체 등 전자부품	3,433	-8.2	-4.3	2,984	-3.6	-13.1	41,502	3.2
3	자동차부품	3,524	-2.9	6.2	2,676	-3.7	-24.1	39,910	2.4
4	철강	2,835	-7.5	-5.1	2,372	-13.7	-16.3	34,415	4.8
5	원동기	2,603	2.6	6.7	1,996	-2.4	-23.3	29,489	7.4

자료 : 일본 재무성

5) 2019년 1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억 엔, %)

순위	국가	2018.12월			2019.1월			2018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기비	전월비		전년 동기비
1	미국	14,347	1.6	3.2	11,395	6.8	-20.6	154,656	2.3
2	중국	14,026	-7.0	1.3	9,581	-17.4	-31.7	159,018	6.8
3	ASEAN	10,888	-1.4	-1.2	8,569	-7.3	-21.3	126,366	6.4
4	EU	8,229	3.9	10.4	6,993	-2.5	-15.0	92,104	6.4
5	한국	4,799	-11.6	2.1	4,228	-11.6	-11.9	57,932	-3.0
6	대만	4,032	-7.1	3.0	3,161	-11.0	-21.6	46,802	2.7

자료 : 일본 재무성

6) 2019년 1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억 엔, %)

순위	품목	2018.12월			2019.1월			2018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기비
1	원유	8,304	7.2	-9.2	6,386	-10.3	-23.1	89,109	24.5
2	액화천연가스	4,744	25.7	16.0	4,798	15.3	1.1	47,303	20.8
3	통신기	2,271	-36.8	-43.2	3,160	-5.1	39.1	30,839	-0.8
4	의류 동부속품	2,426	2.8	-10.4	2,878	6.1	18.6	33,036	6.3
5	의약품	2,426	21.5	-5.1	2,858	9.8	17.8	29,431	11.3

자료 : 일본 재무성

7) 2019년 1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억 엔, %)

순위	국가	2018.12월			2019.1월			2018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기비
1	중국	15,970	-6.4	-15.4	18,378	5.6	15.1	191,861	3.9
2	ASEAN	10,303	0.9	-6.2	10,111	-6.2	-1.7	123,915	7.3
3	EU	8,022	2.0	-9.2	7,953	-2.8	-0.9	96,982	10.8
4	미국	8,668	23.9	13.3	7,721	2.7	-10.9	90,108	11.4
5	호주	4,408	7.9	-1.1	4,680	19.8	6.2	50,484	15.7
7	한국	3,171	3.9	-2.5	2,868	-5.8	-9.6	35,491	12.6

자료 : 일본 재무성